

제목: 시므온의 기도응답 **The Answer of Simeon's Pray**

본문 누가복음 **2:22-33**

22.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And when the days for their purification according to the law of Moses were completed, they brought Him up to Jerusalem to present Him to the Lord

23.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as it is written in the Law of the Lord, "EVERY firstborn MALE THAT OPENS THE WOMB SHALL BE CALLED HOLY TO THE LORD")

24.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함이더라 and to offer a sacrifice according to what was said in the Law of the Lord, "A PAIR OF TURTLEDOVES OR TWO YOUNG PIGEONS."

25.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And there was a man in Jerusalem whose name was Simeon; and this man was righteous and devout, looking for the consolation of Israel; and the Holy Spirit was upon him.

26.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And it had been revealed to him by the Holy Spirit that he would not see death before he had seen the Lord's Christ.

27.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And he came in the Spirit into the temple; and when the parents brought in the child Jesus, to carry out for Him the custom of the Law,

28.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then he took Him into his arms, and blessed God, and said,

29.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Now Lord, You are releasing Your bond-servant to depart in peace, According to Your word;

30.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For my eyes have seen Your salvation

31.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Which You have prepared in the presence of all peoples

32.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A LIGHT OF REVELATION TO THE GENTILES, And the glory of Your people Israel."

33.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히 여기더라 And His father and mother were amazed at the things which were being said about Him.

오늘 본문에서 어린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시므온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도 응답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사실을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오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은 성령으로 준비된 마음과 생활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지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26 절**). 때가 되어 아기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차매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니 그곳에 성령의 지시를 통하여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시므온은

첫째,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